

# SUMMER

## 한올타리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48 No 2 2018. 6. 24  
편집: 홍보위원회

# 권두언

이영길 목사

## 교단 총회 단상

이 달에 St. Louis에서 저희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2년전에는 제가 보스톤 노회를 대표해서 총대로 참석했었습니다. 물론 총대뿐 아니라 에큐메니칼 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섬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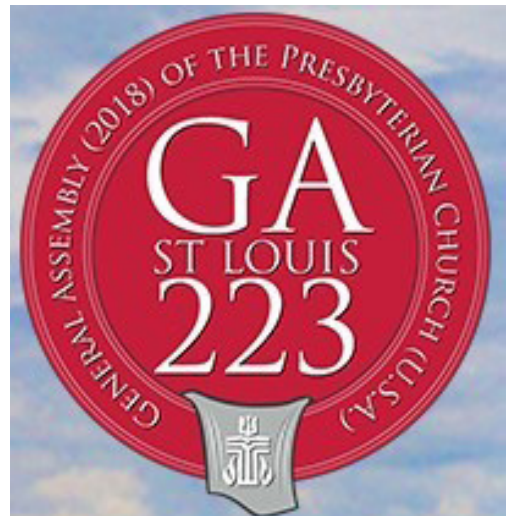
총회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minority의견을 듣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 총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민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자’ 등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안건을 올리는 기관은 노회입니다. 물론 시작은 당회가 먼저 해야 하구요. 어느 당회가 안건으로 올리면 노회가 가부를 결정한 후 총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상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노회 이상이 어느 노회에서 올린 안에 재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안건 하나 올리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몇 달 전부터 당회와 노회에서 통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회 열리기 얼마 전에 중요한 안건이 생각이 날 경우는 이미 기한이 지나가 버려서 노회를 통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총회법에서 길을 열어 놓았는데, 두 명의 총대가 안건을 낼 경우 총회 위원회에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총대 곧 두 사람이 그 큰 총회의 결정을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Minority의 소중함을 인정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저희 교단은 민주주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또한 잘 보완하고 있는 정치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8년4월 1일 부활절 예배를 주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며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부활절 예배와 3, 4, 5월 주일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예배예술위원회의 여러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배예술위원회 봉사자들: 1, 2부 찬양대; 찬양팀; 방송실팀; 동시통역팀; 1, 2부 예배위원

2. 2018년도 제직수련회: 4월 21일 토요일 (오후4시 - 9시)에 NCKPC 사무총장이신 박성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 4:14)’ 라는 주제로 2018년 제직수련회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직수련회는 교회의 여러 위원회가 연합하여 4개의 사역팀으로 나누어 모이는 사역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1차 준비모임 (3월 25일 1:30)에서는 교회 제직들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여러기관 (부부청년부, 집사회, 에스더 여선교회, 마리아 여선교회, 권사회, 남선교회) 대표들이 예배예술위원들과 함께 모여 제직수련회의 전반적인 방향과 제직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고, 2차 준비모임 (4월 8일 1:20)에서는 각 사역팀들의 대표 발표자들과 사회자들, 그리고 예배예술위원들이 모여 사역별 모임의 진행과 제직들이 자녀들이 수련회 동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다음 시도한 온라인 사인업 웹사이트를 통해 상당히 많은 제직들이 사전에 사인업을 함으로써 사역별 모임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1부에 진행된 신임제직 (서리집사, 권사) 소개의 시간에 제직들이 자기소개와 신앙간증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좋은 시간을 가졌고, 당회 산하의 위원회들을 3개씩 묶은 사역별 모임에서는 위원회간 소개와 소통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움과 교육사역팀



나눔사역팀



선교사역팀



섬김사역팀

처음 시도한 온라인 사인업 웹사이트를 통해 상당히 많은 제직들이 사전에 사인업을 함으로써 사역별 모임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1부에 진행된 신임제직 (서리집사, 권사) 소개의 시간에 제직들이 자기소개와 신앙간증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좋은 시간을 가졌고, 당회 산하의 위원회들을 3개씩 묶은 사역별 모임에서는 위원회간 소개와 소통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봉사에 관심이 있었던 몇몇 신임 제직들이 위원회에 연결되어 봉사하게 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박성주 목사님의 주제강의에서는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에서 북미 장로교회가 끼친 선교적 역할을 함께 상고하며, 우리가 미국장로교에 대해 사랑에 빛진 자임을 살피면서 이 시대에 우리 한인교회가 미국장로교 교단과 미국사회에서의 사명에 대해 다시 살피는 귀한 도전을 받았습시다.

우리 자녀들은 수련회 동안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녀들을 동반한 제직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수련회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직수련회를 잘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면서, 제직수련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집사회 임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각 사역별 모임과 전체 진행을 위해 수고하신 집사님들, 그 외에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신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방송실 장비교체: 본당 스피커 6개, 본당 뒷편 프로젝트 램프교체, 방송실 앰프로 교체, 비디오 조율장치 수리 했습니다. 더욱 선명한 음질과 화질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신 방송실 봉사자들 (최현구, 황동준, 정재원, 김진홍, 이봉욱 집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유택 장로  
 보고 이혜원 집사

<국내 단기선교>

2018년 7월 7일(토)부터 7월14일(토)까지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독립국가인 나바호 국가(Navajo Nation)으로 단기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들로 구성된 14명의 단기선교팀은 특히 뉴멕시코 주의 큐바/오호 엔시노 (Cuba/Ojo Encino, NM) 지역에 위치한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나바호 부족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만4세 - 19세)을 위해 1주일간 여름 캠프를 운영합니다. 나바호 부족은 스스로를 드네 (Dineh)라고 부릅니다. Dineh는 영어로 The People이라는 뜻입니다.

선교팀은 토요일 오전에 보스톤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후에 뉴멕시코 앨버커키에 도착하여 두시간 반 정도 자동차로 이동하여 뉴멕시코와 콜로라도가 만나는 산타페 국립 산림(Santa Fe National Forest)에 위치한 크리스찬 비전 아카데미(Christian Vision Academy)로 향합니다. 이덕재 선교사님과 함께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10여 년 동안 나바호 부족을 섬기고 계신 크리스찬 비전 아카데미는 나바호 부족의 청소년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키우는 비전을 가지고 원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자립을 위한 라벤더 농장을 운영하며, 또 가까운 미래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학교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주일에는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나바호 부족의 교회에서 나바호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간 있을 여름캠프를 교회근처 마을에서 홍보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숙소에서 예배와 아침식사 후 차로 45분가량 이동하여 나바호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현지교회에서 오전 9시부터 셔틀운행을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찬양과 기도, 성경읽기, 음악(작곡과 우클렐레 ukele 연주),레크리에이션, 미술, 점심식사와 간식 제공 셔틀운행 등 사역을 합니다.

숙소와는 달리 거의 사막에 가까운 척박한 광야에 위치한 보호구역내에서는 교통이 불편하여 어린이들이 한시간씩 광야를 걸어서 캠프에 참여하는 일도 있어 선교팀이 셔틀을 운영합니다. 금요일에는 드네 이웃들을 초대하여 그동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캠프를 통하여 배운 것들을 뽐낼 수 있는 음악회와 만찬을 제공합니다. 토요일 오전에 앨버커키를 출발하여 보스톤에 늦은 밤에 도착합니다.

뉴멕시코 단기선교팀원은 이유택 장로 (단기선교단장), 이선영 장로, 김수영 목사, 곽서영 집사, 조나현, 서범석, 배유미, 정운원, 부지형, 안규리, 이하윤, 안민준, 정종인, 이혜원 집사입니다. 또 선교지원팀으로 이경자 권사님, 윤경문 목사님, 김동규 집사님과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섬겨주십니다.

특별히 청년1부, 해외선교와 국내선교위원회가 함께 주최한 김밥 바자와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주최한 깍뎌(Gitxm Mushroom Co.) 고사리/버섯 바자에서 큰 도움을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모든 교우님들과 부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주 토요일 아침기도 시간에 단기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시는 이영길 목사님과 이성혜 사모님, 또 여러 교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뉴멕시코와 콜로라도에 큰 산불이 일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억압과 고통의 역사를 간직하고 알콜중독과 사회적인 억압, 높은 청소년 자살률 등 힘든 여건 속에 살아가는 드네(Dineh) 이웃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현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덕재 선교사님과 여러 선교사님과 다른 교회의 단기선교팀들을 위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Outreach Program- Oasis Café Music Night

### 재즈 콘서트 “Jazz for the Soul”>

우리 교회가 위치한 부르클라인과 보스톤 지역 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열리고 있는 오아시스 카페 뮤직 나이트는 6월 23일 오후 7시 공연을 가졌습니다.

보스톤의 여름을 알리는 것 중 한 가지가 재즈 공연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름방학을 시점으로 다양하고 시원한 재즈 선율들이 도시 곳곳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오아시스 카페 뮤직 나이트에서는 버클리 음악인들로 구성된 PHD(Pure Holy Dedication) Band의 “Jazz for the Soul” 콘서트를 ECC Chapel에서 열었습니다.

보스톤 한인교회 국내선교회의 오아시스 카페 뮤직팀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에서 색소폰에 루카스 비어, 베이스에 마사키 사이토, 피아노에 박금주, 드럼에 홍지형(청년 1부), 그리고 특별출연 유아영씨가 보컬로 참여하여 정통 재즈 및 가스펠 재즈를 선보였습니다. 재즈와 클래식 양식의 접목으로 유명한 조지 거쉬인과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의 프랭크 죄씨의 곡들을 선보였으며 PHD 밴드가 직접 재해석한 가스펠 재즈곡들을 선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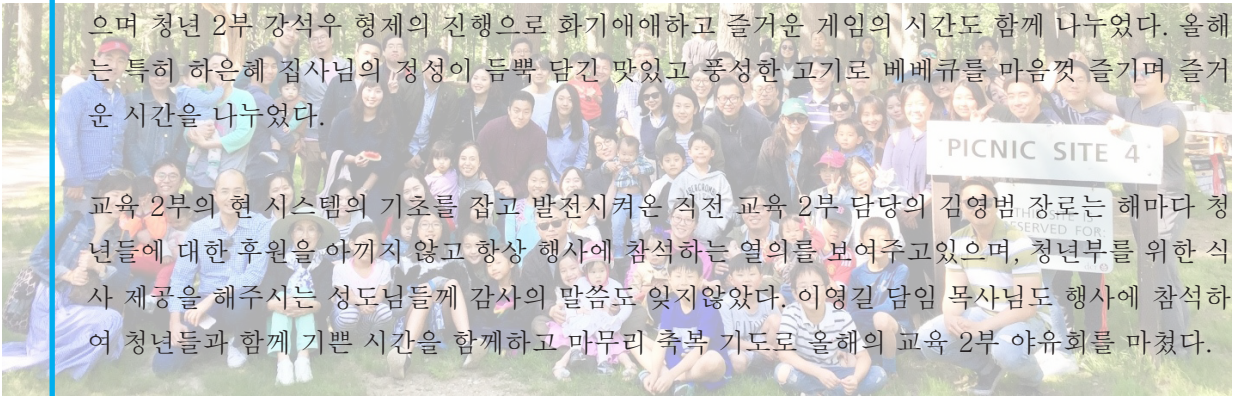
연주자들과 관객들의 소통을 위한 간단한 리셉션이 공연 이후에 마련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시는 음악인들과 봉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한문수 장로

청년 1부 (이요한 담당 목사), 청년 2부 (윤경문 목사, 김수영 담당 목사), 부부 청년부 (김성천 담당 목사)가 소속된 교육 2부(위원장, 한문수 장로)에서는 지난 6월 3일 오후에 Milton 소재 Blue Hills Park에서 2018년 전체 야유회를 가졌다. 해마다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교육 2부 전체 야유회는 이전 위원장인 김영범 장로(현 재정 장로)와 구용한 교육 2부 부위원장, 그리고 최학수 교육 2부 담당 집사님들이 함께 후원하고 각 부서에 할당된 준비물로 화창한 날씨 속에서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올해에는 각 부서 회장단들의 간단한 인사와 각 부서 사업에 관해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청년 2부 강석우 형제의 진행으로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게임의 시간도 함께 나누었다. 올해는 특히 하은혜 집사님의 정성이 듬뿍 담긴 맛있고 풍성한 고기로 베베큐를 마음껏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다.

교육 2부의 현 시스템의 기초를 잡고 발전시켜온 직전 교육 2부 담당의 김영범 장로는 해마다 청년들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고 항상 행사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여주고있으며, 청년부를 위한 식사 제공을 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도 잊지않았다. 이영길 담임 목사님도 행사에 참석하여 청년들과 함께 기쁜 시간을 함께하고 마무리 축복 기도로 올해의 교육 2부 야유회를 마쳤다.



## 김형범 장로

-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서 -

구역별 찬송가 경연대회부터 어머니 주일 찬양제를 이어 올하는 ‘한가족 예술제’가 ‘어린이 주일’, ‘어머니 주일’ 등이 있는 가정의 달 5월20일(주일)에 여선교회의 주관과 집사회의 협조로 많은 부서와 구역과 팀이 참여하여 은혜스럽게 열렸다.

작년까지만 해도 심사를 받는 처지였는데 올해는 상록기도회를 대표하여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느끼는 나의 감사와 감동은 예년과는 너무 많이 달랐다. 10개의 팀이 참여하였는데 3 그룹으로 다시 나누어 본다.

썸플라워 유년부, 썸플라워 초등부, 중고등부와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 그룹이 3세대로 밝은미래의 주인공들이었다. 유년부의 아기들이 밝은 표정과 몸놀림으로 다같이 한 가족이 되어 앙증스럽고 귀엽고 맑고 깨끗하게 잘

했다. 초등부의 어린이들은 한층 세련된 모습으로 푸른 하늘을 날으는 새들처럼 소망과 사랑의 비약의 세계로 이끌어 갔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정제되고 단련된 규율있는 모습으로 시작하여 그 엄청난 울동과 외침으로 우리의 심장을 더욱 뛰게 하였다. 딸은 앞에서 리드하고 어머니는 뒤에서 함께 춤추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아이들 그룹은 아이들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구슬같은 노래를 선사하였다. 밝고 맑고 아름다운 미래를 충분히 느끼고도 남게 해 주었다.

부부청년부와 청년 1,2 부는 2세대로 미래의 주역이다. 특히 부부청년부는 자녀들을 안고 나와서 온 가족이 참여하는 한가족의 참 모습을 보여주어 그들이 중장년이 되었을 때의 리더들이 될 내일을 잘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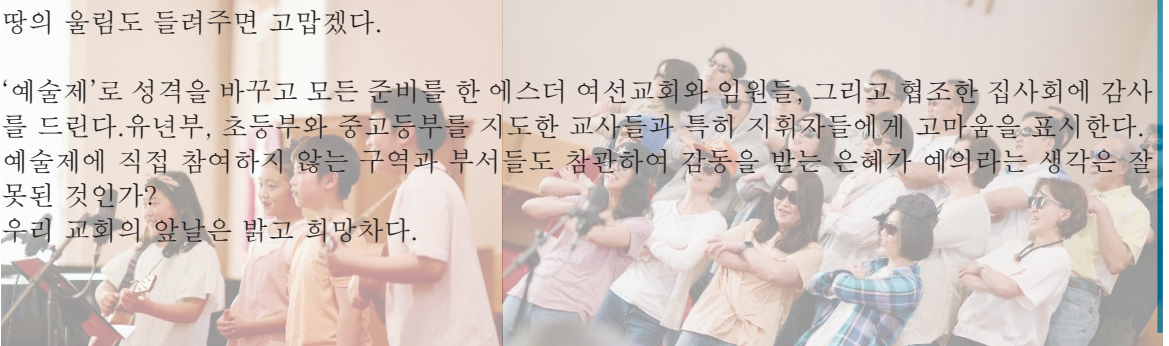
청년 1, 2부는 약간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희망의 미래가 있음을 곧 알게되었다. 현실은 지치고 힘든 세상이지만 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한다. 내일은 젊은이의 세상이다

남서구역, 북서구역, 중앙 3,4 구역과, 북동구역/하늘 소리는 예비 1세대들이다. 안정되고 깨끗하고 조화된 음성으로 차분하게 노래를 불러서 2세대,3세대가 의지하고 기댈 있는 튼튼한 기둥과 바탕이 되고있음을 잘 보여주었고, 중앙 3,4 구역은 젊은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어 특별한 감동을 주었다.

하늘소리는 하늘에서 오는 소리는 잘 전하였지만 추임새인 ‘얼수’가 빠져서 아쉬웠다. 다음부터는 땅의 울림도 들려주면 고맙겠다.

‘예술제’로 성격을 바꾸고 모든 준비를 한 에스더 여선교회와 임원들, 그리고 협조한 집사회에 감사를 드린다. 유년부,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지도한 교사들과 특히 지휘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예술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구역과 부서들도 참관하여 감동을 받는 은혜가 예의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인가?

우리 교회의 앞날은 밝고 희망차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

아직 달력에서는 여름이 아니지만 지금 N.E지방의 뜰에 새로 돌아난 잔디의 색깔이 ‘신록예찬’에서는 신록이라고만 묘사한 잔디의 색깔로 내눈에 몇 십년 만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다. 내 생애 처음으로 그런 잔디의 색깔을 보게 되어 마음의 감동은 청춘의 심장의 고동을 듣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상록기교회원이다. 비록 ‘록’은 같을지라도 신록이 아니고 상록이다. 상록이라고 우겨대도 노년이다. 최고령 정회원인 이상구 권사님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해야겠다.

5월에는 Denver에서 온 양순선 (Sun-Son Kim)교우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정회원이 30 명이 되었다.

4월 29일 (주일)월례회에서는 한문수 장로가 ‘행복하게 돈쓰는 방법’을 강의하고 찬조금 \$200을 내주었다. 김순금 권사도 \$300을 내주었다. 이날 식사는 정명상 집사 /강영숙 권사 (부회장택)가 마련하였다.

5월 27일 (주일) 월례회에서는 이요한 목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요 4:3-15)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하였다. 지난 3월 김성천 목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말씀에 이은 2번째 신학 강의였다. 이 날 식사는 전회장 공경희 권사택에서 마련하였다.

5월 어머니주일에는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으로 남선교회 (회장 한문수 장로)에서 귀한 선물을 우리 회원들에게 보내왔다.

올해는 어머니 주일 찬양제가 ‘한가족 예술제’로 바뀌면서 매년 참가하였던 우리 상록기교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몇 분 심사위원들이 섭섭해하였다.

6월 24일(주일) 월례회는 1부예배를 드리고 매년 집사회가 주관하고 후원하는 야유회를 Laz Anderson Park에서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비오는 날씨로 2년 연속 갖지 못하다가 작년에 가졌는데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stress를 풀고 그야말로 recreation이 된 마음으로 돌아왔다. 올해도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된다.

7월 월례회는 상록기교회 헌신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린 후에 가질 예정이다. 우리 상록기교회는 나이가 많다고 하여 대접만 받으려 하지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보다 젊은, 어린 모든 교우들을 보살피고, 안아 주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려고 한다.



회장 이재익 집사  
보고 노현철 집사

봄 기운이 꿈틀대던 4월 마지막 주(28일) 토요일에 우리교회 봄 맞이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매년 2회에 걸쳐 어머니 교회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몸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교우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청소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특히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전은 집사회 임원, 남선교회 임원 그리고 청년부 위주로 20여명이 교회 전체를 청소하느라 일손이 많이 모자랐기에 올해는 보다 많은분들의 참여를 위해 각 구역 및 부서별로 청소할 구역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준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걱정과 기대를 같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올해는 무려80여분이 오셔서 힘을 합쳐 청소를 하였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교회가 많이 깨끗해졌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ECC건물의 많은 방들의 벽이 낙서 등으로 많이 더러워져 있는 관계로 차후 집사회와 건물 관리 위원회가 올 여름에 도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올 가을에 있을 청소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봄맞이 대청소를 마치며..

80명이 넘는 교우들과 함께 우리 어머니 교회를 “함께” 청소하고 나서 깨끗해진 성전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며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느낍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깨끗해야 할 성전인데.. 라는 도전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어머니 교회인 보스톤한인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전교인이 함께 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회장 최정우 집사  
보고 정은아 집사

4, 5, 6 월은 hot한 계절이 돌아오는 만큼 에스더 사역도 매우 바쁘고 분주하였습니다.

4월 첫 주에는 전교인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교인수 만큼의 달걀을 삶아내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있는 봄맞이 대청소 때는 위 아래 부역을 도맡아 냉장고와 물품을 맡끔히 정리하였고 어머니 주일에는 교회 정문에 들어서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또 다른 이름 어머니들께 정성껏 꽃을 준비하여 달아드렸습니다. ( 최안나 집사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

어머니 주일 찬양제가 한가족 예술제라는 이름으로 행사 성격을 바꾼 2018년도에는 행사준비의 이모저모에 참여하여 5월 에스더 사역의 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준비되는 친교 간식을 2번째 주에는 집사회 여러분들께서 성심성의껏 준비해주셨음을 이번 보고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 회장 한문수 장로

남선교회에서는 해마다 2회에 걸쳐 섬기고 있는 청년부/유쓰 그룹 식사 대접을 지난 4월 15일에 하였다. 하루 전날 저녁에 교회 부엌에 모여 식사 준비를 하며 남선교회 회원들 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는 등 좋은 시간을 가지며 봉사하였다.

남선교회 주최 2018 년 선교 기금모금 골프대회가 지난 5월 5일 Braintree Golf Course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선교기금 모금 골프대회는 남선교회 체육 부장인 김준구 집사와 체육부 차장 신순균 집사의 노력과 전임 회장단 출신의 홍성일 집사 등의 노력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올해에는 김세철 장로가 미국인 친구와 아들이 참석하여 주었고, 또한 보스톤을 방문중인 정재원 집사 부모님들이 특별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다. 회계 정광근 집사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2,820.01의 선교 기금을 모금하여 김영범 재정 장로께 전달하였다.

남선교회는 올해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9월 15일로 이미 날짜를 확정하고 Braintree Golf Course 예약까지 이미 마친상태이다. 장학기금 모금 골프 대회에는 더욱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를 희망하고있다.



지난 5월 27일에는 남선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에 따라 상록회에 선물을 전달하였다. 매해 5월 어머니날 즈음에 시행되어지고 있는 상록회 회원 전체에 대한 선물 증정을 역대 남선교회의 전통을 유지 발전 시키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 되기를 바란다. 상록회 회장 김형범 장로는 남선교회에서 준비해준 선물에 대해 고맙다며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부담없게, 재미있게, 활기차게, 타 부서를 돕는 남선교회”의 표어로 출발한 2018년도 보스톤 한인교회 남선교회의 전반기 행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봉사를 할 계획이다.

회장 박상철/이혜원 집사  
보고: 신민영 집사

세상의 빛이 되는 부부청년부라는 표어로 2018년도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부부 청년부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부청년부는 현재 등록가정 약 35가정에 꾸준히 20가정정도가 매주 주일예배 후에 모여서 함께 찬양과 말씀을 바탕으로 교제하며 서로 섬기고 있습니다. 6개의 조로 나뉘어져 매달 각 가정과 교회에서 두번씩 조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눕니다. 또, 한달에 한번씩 형제와 자매가 따로 모여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며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서로도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갓 태어난 아기부터 만 40이 넘는 연장자까지 매달 생일 축하하는 자리를 가지고 서로를 세상에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5월 6일에는 이주원/이은미 가정의 베이비 샤워가 있었고 5월 19일에 준휘를 건강히 득남 하셨습니다. 5월 27일에는 뉴저지로 이주하시는 민동국/박영애 가정의 환송회를 가지고 아쉽지만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자리를 가졌으며, 같은 날 앤드류 반스/김시는 가정의 새가족 환영회로 부청의 새식구를 환영하며 축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6월 15-17에는 Pilgrim Pines에서 워싱턴 제일장로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김성원 목사님을 모시고 “믿음의 싸이언스”-그 때에는 온전히 알리라 (고전 13:12) 라는 제목으로 수련회를 가지고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부부청년부는 부부청년부 안에서의 일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의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에 있었던 집사회 대청소에 집사 여부에 관계없이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여하여 교회를 깨끗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4월 29일에 있었던 자녀교육 세미나에 참여하여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지에 대한 배움의 시간에 동참하였습니다. 5월 20일에 있었던 한가족 예술제에 ‘True Light’ 이라는 찬양으로 참가하여 사랑의 공동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6월 3일에 Blue Hill Reservations 있었던 교육 2부 야유회에 참여하여 청년1,2부와 함께 알아가며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5월에 Room 09 Nursery Room 에 유아 매트를 장만하여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가들과 부모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부청년부가 아니어도 아기와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께서는 주일에 Rm 09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부부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담당 윤경문/김수영 목사

청년 2부에서는 5월 초 정기 총회를 열고, 2018-2019년도 새 회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회장에 이준석, 부회장에 양원재, 총무에 성원모 교우가 선출되었습니다. 현 회장단(회장: 강석우, 부회장: 김하얀, 총무:유보라)은 6월말까지 섬기고,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새 회장단이 섬기게 됩니다. 청년 2부 공동체를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준 현 회장단에게 감사를 전하며, 새롭게 선출된 새 회장단의 멋진 리더쉽을 기대해 봅니다. 총회때 한가지 회칙 개정안이 있었는데, 청년 2부 회원 자격은 만 25세 부터, 입회 시 만 40세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에는 김하얀, 홍성환, 유승연, 박초롱, 김영은, 정지윤 교우가 학업을 잘 마치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졸업생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6월 3일에는 교육 2부에서 마련하여 주신 야유회를 Blue Hill Parks에서 가졌습니다. 늘 사랑과 후원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주시는 교육 2부(한문수 장로님, 구용한 집사님 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성민 교사

5월 6일 부터 주일마다 제자양육반 2기가 시작했습니다. 매주 1시 45분에서 3시까지 만나서 성경 안의 여인을 논합니다.

5월 19일 리더와 교사들 회의가 있었고 5월 말과 6월 계획을 세웠습니다.

5월 중에는 Museum of Fine Arts로 학생들 몇 명과 선생님이 Field Trip을 갔습니다.

5월 26일 토요일에 세례를 받은 David, 그리고 견신을 받은 Jason과 Lucy를 축하하는 견신/세례 만찬이 있었습니다.

6월 10일은 Ashley, David, 그리고 Lucy의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고 16일은 여름방학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Praise and Prayer Night가 있었습니다.

17일은 학기 말을 맞아 Larz Anderson Park에서 야외 예배 및 picnic이 있었습니다.



# 중고등부 견신/세례 신앙고백

## Baptism testimony

David Kim

Choosing to be baptized was a hard decision. I didn't know exactly that I wanted to cement my relationship with God but I decided that there would be no harm in taking the classes.



As I was taking the classes, it seemed that I was getting more and more confused as to where I stood with God. There were just so many questions that couldn't be answered. But I guess that's the beauty of Christianity.

For me, being a Christian is more of a personal journey of my faith in God. The stories from the Bible are important, but they don't really contribute to strengthening or weakening of my faith. I know that there is a God and that He's always with me.

So, in terms of me choosing to be a Christian, that's all that matters. All the questions I had from the classes all lead to ambiguity, but I think the ambiguity let me understand that all the answers lead back to my faith.

I'm not much for one to believe in something that I can't see, grasp, or hear. I like facts, evidence, and certainty. There is no proof that God exists, so it was very hard for me to fully believe in God. But confirmation classes got me to come to terms with my belief. Knowing that the existence of God can't be proven sort of gives me comfort.

Thank you.

## Confirmation Testimony

Jason 병호 Kim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호입니다. 오늘 제 견신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견신을 받기 위한 교육을 받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며 한 주, 한 주가 지나며, 저는 하나님께서 진짜이신지 아닌지 의심을 하게되었고, 또 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며, 점점 힘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고등부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수양회 도중 저는 계속 피곤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수양회 마지막 날, 강사이신 Theodore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설교 말씀이 끝나고, 저는 찬양팀의 일원으로 찬양을 인도하려 단 위에 올라 갔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큰 기대감이 없었고 지친 마음 뿐이었습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저를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래 만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계속 되었던 질문들,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던 과정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가 모두 제가 부르고 있는 찬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견신을 받고 제가 알게 된 하나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미래의 삶을 살아가려 다짐합니다.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Confirmation Reflection

Lucy Kim

When I was younger, what the teachers in the Sunflower group taught me was that God is love and that He loves everyone without them changing. And I laughed. That sounded impossible. How could someone so great as He possibly love someone terrible like me? So, I buried myself in work, taking on every possible leadership role in church, leading worship, and staying on Saturdays and Sundays to prove my sincerity to God. And to a certain extent, I enjoyed the times I spent talking to friends and adults. But at the end of the day, when I would come home late at night from church, I was exhausted yet still validated myself saying “I did my job for the week. Now I can get into heaven”. It felt rewarding and safe that I overworked myself because at least I had something to back me up later in life.

But throughout the confirmation classes and the past few months, something in me kept challenging these thoughts. In my head, I knew God loved for me, but I didn’t and couldn’t believe in such nonsense; it sounded too good to be true. But the past few months, in sermons and conversations in the youth group, the topic of love became the center of all discussions and the emphasis on that fact that not only is God love but vice versa, love is God.

The most important aspect I cherish in me is my love for things in life: music, people, art. But to know that the love I feel is God and from God felt interesting. I still can’t fully wrap my head around who God is and what love is, but I don’t mind it because it keeps me thinking and questioning. But what I do know is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love God and love others. That I don’t need to force myself to show off who I am and what I can do to God, but I just need to take it slow and love Him. It’s not the easiest but the pressure is gone now. There’s also a lot more that I learned in just the past few months but it all comes back around in full circle. All my insecurities, my struggles, my anxiety all roots from one source. But that one trauma is easier for me to handle and comprehend when I know that God really does love me through it all.

## 자녀교육 세미나

지난 4월 28일(토)과 29일(주일), 기독교 교육 전문가, 박길재 목사님(Teaneck United Methodist Church, NJ)을 모시고, 두 번의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교육 1부에 속한 중고등부와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교사 세미나’를, 주일 오후에는 이민자이자 신앙인으로서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한 ‘자녀 교육 세미나’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에 있던 자녀 교육 세미나는 ‘우리 아이는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찬입니다’라는 주제로, ‘코리안 어메리칸’이라는 이민자적 정체성과, ‘크리스찬’이라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 과정에서의 도전과 과제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30여 분의 선생님들께서, 주일에는 80여 분의 부모님들께서 함께 모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잘 키워보기 위해 질문하시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 분들의 사랑과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박길재 목사님은, 한국 배경을 지닌 미국인으로서(American with Korean background)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필요한 세 가지로, 스토리, 철학, 그리고 공동체를 제안해주셨습니다. 여전히 동양에서 온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일은 많은 도전들을 안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음은 큰 축복이자 소망을 가져도 되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한 세미나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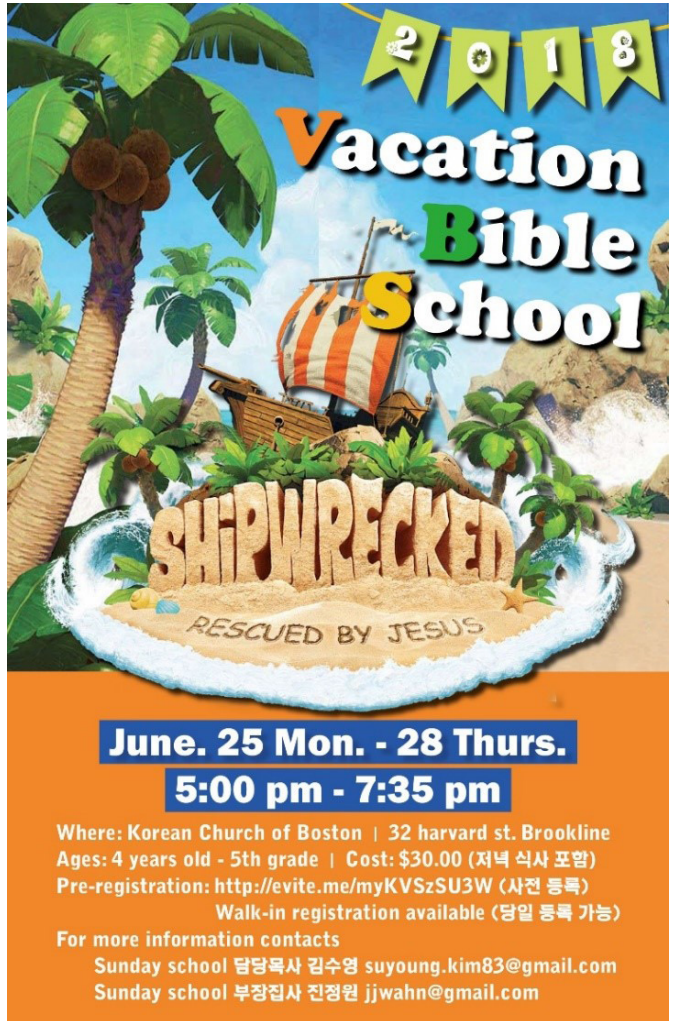
## 여름 성경학교

매년 어린이들의 방학이 시작됨을 알리는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25일 월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우리교회 본당과 친교실,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을 누비며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먹고, 경험하는 잔치입니다. (매일 저녁 5:00 - 7:30pm) 올 해에도 신나는 율동과 찬양이 준비되어 있고,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으며, 오랫동안 잊지 못할 즐거운 예배와 배움의 시간들이 있는 여름 성경학교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Shipwrecked: Rescued by Jesus 입니다. 항로를 잃고 난파한 배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데에 때로는 거센 파도의 도전과, 거친 비바람의 방해가 길을 잃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강한 팔을 붙잡고 그 분께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멋지게 노를 저어 나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총 다섯 가지의 소주제들을 24일 주일예배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배워가며, 매일 매일 말씀과 찬양, 만들기와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몸에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그 사랑을 새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준비가 있더라도 기도가 더 필요한 줄 알기에, 주일학교에서는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이영길 목사님의 한 설교에 영감을 얻어, 우리는 이 기도회를 3년째 ‘칩칩 기도회’라고 부릅니다 (“칩칩” - 칠면조의 새끼가 어미의 보호를 이끌어내는 소리의 의성어). 매일 저녁 9시에 각자의 장소에서 잠시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올타리 소식지를 읽으시는 교우님들께서도 오늘 저녁 9시에 시간이 되시면 잠시 하나님께 해바라기 주일학교와 여름성경학교를 올려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울려퍼지는 우리의 칩칩 소리가 하늘에 닿으리라 믿습니다.



The poster features a tropical island scene with palm trees, a shipwrecked boat, and the text 'Vacation Bible School 2018' and 'SHIPWRECKED RESCUED BY JESUS'. Below the image, the dates and times are listed: 'June. 25 Mon. - 28 Thurs. 5:00 pm - 7:35 pm'.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orean Church of Boston is provided, including the address, cost, and registration details.

**2018**  
**Vacation Bible School**

**SHIPWRECKED**  
**RESCUED BY JESUS**

**June. 25 Mon. - 28 Thurs.**  
**5:00 pm - 7:35 pm**

Where: Korean Church of Boston | 32 Harvard St. Brookline  
Ages: 4 years old - 5th grade | Cost: \$30.00 (저녁 식사 포함)  
Pre-registration: <http://evite.me/myKVSzSU3W> (사전 등록)  
Walk-in registration available (당일 등록 가능)

For more information contacts  
Sunday school 담당목사 김수영 [suyoung.kim83@gmail.com](mailto:suyoung.kim83@gmail.com)  
Sunday school 부장집사 진정원 [jjwahn@gmail.com](mailto:jjwah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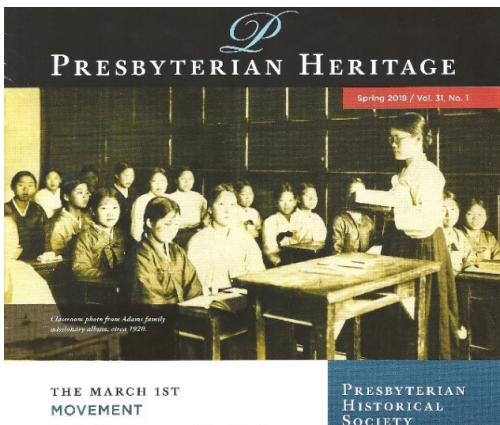
# NCKPC 제 47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 참석보고

제47회 NCKPC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가 은혜 중에 성료되었습니다. 2018. 5. 15~18 (화~금)에 San Diego에서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에 4:14)”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약 3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 학교, 병원 등을 건립하여 한국 사회의 초석을 만들어준 미국장로교단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총회 및 전국대회였습니다.

NCKPC 총회 사상 처음으로 미국장로교 정서기인 J Herbert Nelson 목사를 주강사로 초청하여 교단의 방향과 주안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미국장로교 역사자료국 사무총장인 Beth Hessel 목사를 통해 PCUSA 선교국이 파송한 초창기 선교사들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기록이 역사자료국에 있음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인목회실 총무인 조문길 목사를 통해 미국장로교의 구조와 사역 전반에 대해 큰 그림을 소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단을 이끌어 가는 실제적인 Leader와 교단 역사를 관장하는 대표를 주강사로 초청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NCKPC가 가지는 교단적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교단의 사역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며, 동시에 교단 대표들에게 Caucus로서의 NCKPC의 존재감과 의미를 확인시키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전국대회에 앞서 하루 전에는 한인목회실이 주관하는 Preconference를 통해 본교단에 새로 가입한 목회자들과 임직한 장로들을 대상으로 미국장로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을 처음으로 가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장로교 정서기인 J Herbert Nelson 목사와 한인목회실 총무 조문길 목사와 함께

그동안 참여가 저조했던 30~40대 목회자들이 상당수 참석하였고 (약 40명 정도), 3040 목회자들로 이루어진 총회준비팀을 통해 조직적인 총회 준비와 진행을 함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담임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가한 것, 그리고 새로운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참석률이 상승한 것은 이번 총회의 고무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평신도 총대들의 참석율이 아직도 저조한 편이며, 향후 더욱 건강한 NCKPC가 되기 위해 평신도 Leader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내규 수정을 통해 새로운 내규를 채택하였으며, 기존의 6개 지역으로 나누어 돌아 가며 총회장 후보를 공천하던 System이 없어지고, 금년부터는 미 전역을 동서로 양분하여 후보 경선을 통해 차기 총회장을 선출하는 System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선출 System에 의한 첫 차기 총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신임원회 명단

- 총회장 원영호 목사 • 차기총회장 최병호 목사 • 부총회장 김영철 장로 • 사무총장 박성주 목사
- 서기 박근범 목사 • 회계 김 일 장로 • 협동 총무 김성택 목사 • EM총무 주성염 목사
- 남선교회 대표 엄재용 집사 • 여선교회 대표 양정아 장로 • 정책자문위원장 이영길 목사
- 한인목회실 총무 조문길 목사 • CCKAP 대표 김삼영 목사

\* 감사: 양혜란 장로, 이재봉 장로

(NCKPC 6월호 Newsletter에서 발췌)

본 교회에서는 이영길 목사님이 목회자 총대로, 이유택 장로가 평신도 총대로, 김한나 장로가 방청인으로 참석하였고 이성혜 사모님도 사모회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 5월 쉼마의 밤

쉐마 준비팀 최학수 집사

먼저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을 순조롭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걱정하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촛불점화로 시작된 5월 쉼마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로 축복된 시간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쉼마 찬양단의 찬양과 더불어 찬양 중간에 중고등부를 축복해 주는 은혜로운 순간들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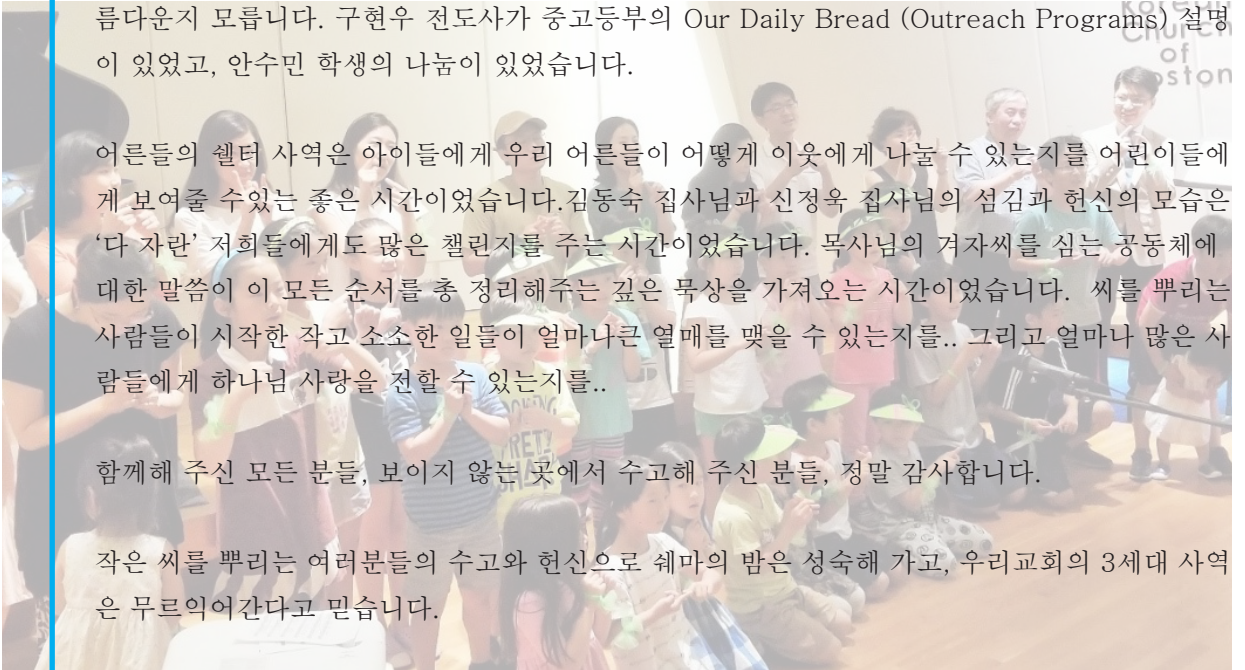
유년.초등 주일학교의 겨자씨 사역 보고에서는 뉴멕시코에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보냈던 겨자씨 project의 감동적인 비디오를 김수영 목사님께서 준비하여 주셨고, 박미정 선생님의 설명과 이어서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찬양까지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바쁜 일정에 아이들 소품까지 준비해 주신 정은아 집사 외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3세대 찬양팀이 나눠주신 어른들 축복송은 예술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똑딱 만들어 내신 예술감독(?) 이해승 집사께 감사드리며, 박수현 어린이의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곡의 피아노를 쳐주신 이동화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쉽지 않은 시기인 줄 잘 알기에 이 아이들의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구현우 전도사가 중고등부의 Our Daily Bread (Outreach Programs) 설명이 있었고, 안수민 학생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쉼터 사역은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지를 어린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김동숙 집사님과 신정옥 집사님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은 '다 자란' 저희들에게도 많은 챌린지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겨자씨를 심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이 모든 순서를 총 정리해주는 깊은 목상을 가져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시작한 작고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쉼마의 밤은 성숙해 가고, 우리교회의 3세대 사역은 무르익어간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 멤버가 되시는 새교우님들을 환영하며, 4월 새교우 환영반 모임을 가졌습니다. 3번에 걸쳐 새교우 교육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주에는 김동규/이승연집사택에서 베풀어주시는 환영 만찬을 통해 서로를 더욱 잘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18년 4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

**손승범/권영선** 가정: 손승범 교우님께서 포스트닥 연구원으로 MIT에서 일하시기 위해 콜로라도에서 세 달 전 이주하셨습니다. 손승범 교우님께서 콜로라도에서 교회에 출석하시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두 아들 민준(3살), 연준(2살)의 아버지로써 육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권영선 교우님께서 모태신앙으로써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셨고,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4년 전 결혼 후에 미국에 오게되었고, 보스톤한인교회가 콜로라도에서 출석했던 교회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 큰 어려움이 없이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전현호** 교우님께서 2002년에 미국에 오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식적인 신앙은 가지게 되었으나 항상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Purdue 대학에 있을 당시 남편인 최재원 집사님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최근에 보스턴으로 이주하셔서 BU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하며 영적으로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민철홍/정지선** 가정: 회계사로 일하시는 민철홍 교우님께서 보스턴에서 2년간 주재원으로 일하시게 되어 세 달 전 오셨습니다. 민철홍 교우님께서 모태신앙이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못했기에, 보스턴에서 생활하는 동안 신앙의 기초를 잘 닦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정지선 교우님께서 불교 집안에서 성장하셨고, 보스턴에 오신 후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보스턴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신앙적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슬하에는 아들 동준(4살)이 있습니다.





## 2018 보스톤 한인교회 전교인 여름 수양회 - 2018. 8. 17(금) - 19일(주일)

올해 전교인 여름 수양회가 8월 17-19일에 Pilgrim Pines (NH)에서 열립니다.

일상의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온 가족이 함께 주님과 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보스톤 한인교회가 마련한 전교인 여름 수양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안식과 자유, 회복과 치유,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름수양회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주제: 복음으로 누리는 살아있음의 위엄(엡 3:5-13)

강사: 김호남 목사, 시드니 살롬 장로교회, 시드니 신학대학 한국신학부 학장

장소: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Swanzey, NH 03469 (603)352-0443

등록비: 성인 \$130, 65 세 이상/학생 \$80

4 세 이상 주일 학교 어린이 \$70, 4 세 미만 \$0 한 가족 maximum \$400

\*\* 7 월에 등록하시면 한 사람당 \$20(한 가족은 \$80)을 할인해 드립니다!

수양회 참가 신청은 7월부터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인위원회 (이문영 장로 munyoung55@hotmail.com, 손영권 집사 yson72@hotmail.com)께 연락 바랍니다.

보스톤 한인교회

# 평신도 Vision Conference

NCKPC 남녀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주최하는 평신도 Vision Conference 가 열립니다.

- 일정: 2018. 9. 27~29 (목~토)
- 장소: 찬양교회 (담임: 허봉기 목사)
- 강사: 임무영 목사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담임)
- 등록: 1차 등록(8월 15일까지): \$170,  
등록마감(9월 15일): \$200

등록서류는 WWW.NKPM.ORG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관광: \$20 (Ellis Island Museum Tour)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이유택 또는 김한나 장로에게 문의 바랍니다]



## 해외 단기 과테말라 선교 (7/1- 14)

올해 해외단기선교팀은 7월 7일부터 14일까지 과테말라 선교를 떠납니다.

올해도 Primera Iglesia Presbyterian Church와 함께 의료, 교육 선교를 할 예정입니다.

선교지는 Comunidad Galilea Chisec, Alta Cruz Guatemala이며, 선교대원을 다음과 같습니다.

이정민, 채진명, 윤만강, 윤원길, 김애리, 안현준, Carlina Velasquez, Samuel Sanchez, Andrew Sanchez, Andres Sanchez

# 나누고 싶은 모습



청년부- 선교기금을 위한 김밥 바자



한가족 예술제- “아이들”



자녀교육 세미나



집사회-친교실 다과 봉사



봄맞이 대 청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http://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보스톤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